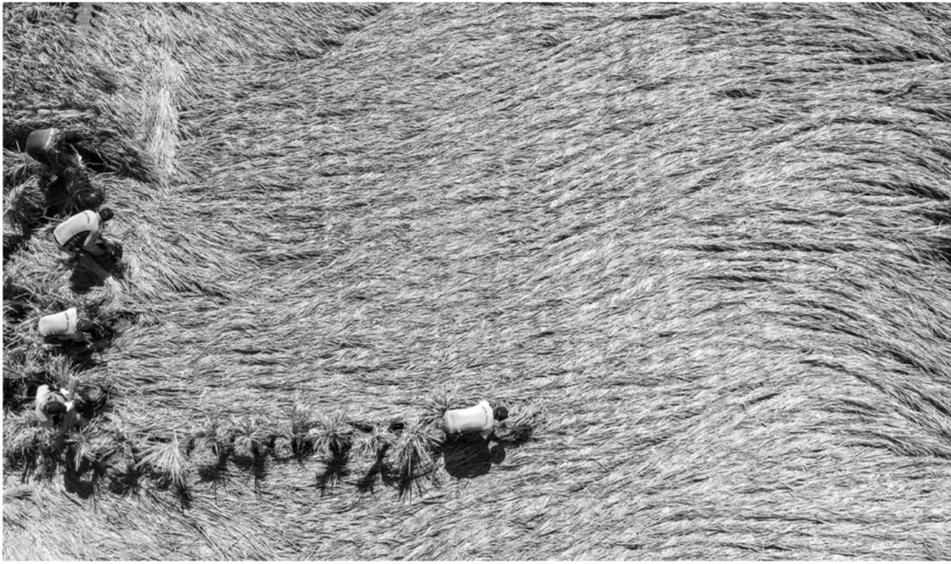


태풍 상처 그대로...추수 앞둔 농심 '한숨'

농작물·양식장 등 막대한 피해
일손 달려 벼 세우기 역부족
전남 피해 복구율 27% 불과
상품성 떨어져 '발만 동동'



18일 광주시 북구의 한 논에서 육군 제31보병사단 장병들과 광주 북구청 직원들이 제13호 태풍 '링링'에 쓰러진 벼를 세우고 있다. /최해배 기자choi@kwangju.co.kr

“돈이 중한 것이 아니며, 농사꾼이라면 나락 하나, 낱알 한톨이라도 더 살려야 제.”

광주시 북구 지아동에서 6612㎡(2000평)의 벼농사를 짓고있는 박판규 씨의 논 사이사이에는 거대 공룡이 짓밟고 지나간 듯한 구멍들이 숭숭 나있었다.

지난 6·7일 전국을 휩쓸고 간 태풍 '링링'으로 쓰러진 벼들이 머리부터 바닥으로 완전히 고꾸라져 진흙이 묻은 채로 누워있었고, 밑에 깔린 짚들이 썩으면서 물비린 내까지 진동했다.

박씨는 “10월 20일쯤 추수를 예상하고 있었는데, 태풍으로 벼가 아직 누렇게 익지 않은 청잎 상태로 물에 잠겼다”며 “쓰러진 벼는 서로 겹쳐 썩거나 미질이 떨어져 낱알이 쉽게 부서지는 등 상품성이 없어진다”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피해면적이 너무 커 작업할 엄두가 나질 않는다”며 “매질 재 벼 세우기 작업을 하고 있지만, 2000평 중 3분의 1 정도가 태풍으로 썩대밭이 돼 일을 해도해도 끝이 없다”고 말했다.

박씨는 “다행히 내일 구경과 군인 장병들이 대민 지원을 나온다고 해 벼 세우기 작업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면서도 “다만 지원 나온 장병들 중 상당수는 농사일이 처음인 탓에 벼 세우는 기술이 없어 작업 속도가 더딘데다, 그나마도 일일이 사전 교육을 해야만 일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답답해했다.

며칠전 대민지원을 받은 옆 논 의 다른

농민은 “보리는 스스로 일어나기도 하지만 벼는 그렇지 않다”면서 “특히나 세워서 묶는 것도 짝 묶으면 썩어버리기 일수라 통풍이 잘되게 기술적으로 잘 묶어야 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제13호 태풍 '링링'이 전남 서해안을 휩쓸고 간지 10여 일이 지났지만, 광주·전남 들녘에는 태풍이 활취고 간 상처로 추수를 앞둔 농민의 심정이 타들어 가고 있다. 도로·상하수도 등 공공시설 등은 대부분 복구를 마쳤으나, 논·비닐하우스·과수원·양식장 등 사유시설은 피해를 입중할 보험조차 사와 추석연휴 등이 겹치면서 일손마저 부족해 복구작업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18일 전남도에 따르면 제13호 태풍 '링

링'으로 인해 전남 19개 시군에서 101억 원의 물적 피해가 발생했다.

이번 태풍으로 해남·화순·보성 등 전남에서는 벼 쓰러짐(도복) 7004ha, 과수 피해 1223ha, 수산 증·양식시설 589여개 등의 사유시설 피해가 집계됐다. 이번엔 피해를 입은 도로 등 공공시설은 추석연휴 전 복구작업이 마무리됐지만, 농작물과 양식시설 등 사유시설의 경우 피해 범위가 워낙 광범위해 복구작업이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도복 피해를 본 농가 중 일부는 벼 세우기 작업 자체를 사실상 포기한 상태다. 전남은 지금까지 8500여 명을 동원해 벼세우기에 나섰지만, 피해면적이 광범위해 현재 복구면적은 고작 27% 수준에 그치고

있다.

전남도 식량원예과 관계자는 “일손 부족으로 쓰러진 벼를 세우지 않고 수확량이 적더라도 아예 콤팩터로 수확하려는 농가도 많다”면서 “전남도 등에 도움을 청한 농가는 인력을 총동원해 벼를 세우고 있지만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태풍에 직격탄을 맞은 수산물 양식장도 피해 복구에 애를 먹고 있긴 마찬가지다. 7개 시·군 262여개에서 피해가 발생한 전남에선 피해조사 등을 이유로 복구작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재산피해가 집중된 신안군 흑산면의 경우엔 오는 24일께나 피해 금액이 확정되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도움 주고도 폭행 당하는 119 구급대원

광주·전남 6년간 폭행 43건
이재정 의원 “차별 강화해야”

구조요청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을 폭행한 사건이 광주와 전남에서 최근 6년간 43건에 달했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비례대표)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이후 광주·전남지역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모두 43건이다. 2014년 7건이었던 광주·전남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이듬해 16건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2016년에는 5건, 2017년 7건, 지난해 6건, 올해 7월까지 2건으로 폭행 사건은

감소세를 보여도 끊이지 않고 있다.

폭행 사건은 대부분 주취자들이 저지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음주가 원인인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39건(90.7%)으로 10건 가운데 9건꼴이다.

구급대원 폭행 사범 가운데 19명은 징역형을, 19명은 벌금형을 받았다. 나머지는 기소유에 처분받거나 수사·재판 중이다.

소방기본법은 출동한 119대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해 화제진압·인명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자를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다.

이 의원은 “119대원을 폭행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더 엄하게 처벌하도록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지적장애 여성 감금·살해 후 암매장

군산경찰, 4명 구속영장 신청

지적 장애 여성을 원룸에 가둬놓고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군산경찰은 “살인과 시신유기 등의 혐의로 A(28)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범행을 도운 피의자 1명도 같은 혐의로 인건해 조사 중이다.

A씨 등은 지난달 18일 오후 익산의 한 원룸에서 B(여·20)씨를 주먹과 발로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경남 거창의 한 야산에 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들은 군산지역에서 알고 지낸 동네 선후배 사이로 사화관계서비스(SNS)를 통해 B씨를 알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 6월부터 대구에 있던 B씨를 8명 규모의 원룸으로 데려와 동거를 했으며, 지적장애를 앓는 B씨가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틈나면 구타하고 욕설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두 달 넘게 원룸 안에서 이뤄진 상습적인 폭행 끝에 B씨가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A씨 등은 사건 당일 사망한

B씨를 차량에 싣고 원룸에서 134km 떨어진 야산으로 이동해 시신을 매장했다.

이번 사건은 B씨와 함께 원룸에 감금됐던 C(31)씨의 부모가 ‘딸이 누군가에게 납치를 당한 것 같다’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C씨는 지난 15일 원룸을 빠져나와 친구 집에 몸을 숨겼지만, 이내 A씨 등에게 발각돼 다시 익산의 원룸으로 끌려갔다. 이를 알게 된 친구는 곧장 C씨의 부모에게 이 사실을 전했다. 신고를 접수받은 경찰은 C씨의 행방을 쫓는 과정에서 B씨가 살해된 사실을 확인하고, 범행 한 달 만에 A씨 등을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다만 B씨가 살해당한 원룸에 감금돼 있던 C씨의 몸에서 구타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A씨 등은 B씨를 살해한 사실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구제적인 경위에 대해서는 입을 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피의자들이 B씨에게 성매매를 강요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은 사항”이라고 일축했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

정차 중 시동 꺼져 광주 지하철 ‘스톱’

전기 공급장치 꺼져 운행 정지
열차 운행 차질 등 시민 불편

광주도시철도 금남로5가역에 정차중인 지하철이 갑자기 운행을 멈춰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지난 17일 오후 8시께 광주시 동구 금남로5가역에 정차중이던 지하철의 시동이 꺼졌다. 이 사고로 소태역 방향 열차들의 운행이 20여 분간 차질을 빚었다.

사고 발생 후 광주도시철도공사는 해당 차량의 승객들을 전원 하차시켰으며, 뒤따르던 열차가 멈춘 차량을 뒤에서 미는

방식으로 운송차량기까지 견인조치했다.

광주도시철도공사 자체조사결과 해당 열차는 열차 내부의 전기공급장치가 끊어지며 전원 공급에 차질을 빚은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같은 날 오후 7시 55분께에는 광주시 동구 도시철도 1호선 운산차량기지 선로 내 전봇대에서 이상전압으로 인한 불꽃이 발생했다.

광주도시철도공사는 이상전압 발생과 열차 운행정지의와 연관가능성을 확인 중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낯시 시즌 잇단 안전사고...나로도서 70대 실종

본격적인 낯시시즌을 맞아 낯시꾼들의 안전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여수해경경찰은 “고흥군 나로도 인근 갯바위에서 70대 낯시꾼이 실종돼 수색에 나섰다”고 18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 17일 낯시를 하던 A(71)씨가 집에 돌아오지 않는다는 가족의 신고가 접수됐다.

나로도 해경파출소와 육상 순찰팀이 수색에 나섰다. A씨의 차량만 발견됐다. 해경은 갯바위에서 A씨의 휴대전화와 소지품이 발견된 점으로 미뤄 바다에 추락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앞서 여수해경은 지난 17일 오후 6시 5

분께 ‘다리에 화상을 입어 육지 전문병원 치료가 시급한 환자가 있다’는 여수시 삼산면 거문도 공중보건의 신고를 받고 긴급 출동해 응급환자 B씨(60)를 구조했다.

해경은 경비함정을 거문도항으로 보내 B씨를 태운 뒤 원격응급의료시스템을 이용해 응급처치를 하고, 고흥 녹동항에 대기 중인 119구급차에 인계했다.

B씨는 9.77t급 낯시배 P호(승선원 18명)에 승선해 백도 인근 해상에서 선상 낯시를 하던 중 비치된 운수통이 넘어지면서 양다리 줄이에서부터 발끝까지 화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

노상방뇨 시비 끝 일행 뒤엉켜 난투극...취객 5명 경찰서행



○노상방뇨 중에 시비가 붙어 주먹다짐을 벌인 20·30대 취객 5명이 폭행 혐의로 나란히 경찰서행.

○18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A(32)씨는 이날 새벽 3시 50분께 광주시 서구 치평동 길거리에서 소변을 보던 중 자신을 쳐다본 B(22)씨에게 ‘뭘 쳐다보

냐’며 화를 냈는데,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감정이 격해져 주먹다짐을 벌이자 함께 있던 일행들이 뒤엉켜 난투극을 벌였다는 것.

○B씨는 경찰조사에서 “소변을 보고있길래 그냥 쳐다본 것 뿐인데, A씨가 욕을 하며 시비를 걸어왔다”며 억울함을 호소.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2018타경 8300, 경매물건. 투자하실 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1계(061-270-6691) / 매각기일 : 2019.10.14(月) (10:00)

2018타경8300		전라남도 무안군 일로읍 월암리 62-12 외 2필지	
물건종별	임야	감정가	1,712,816,000원
토지면적	19835㎡ (6000.088평)	최저가	(70%) 1,198,971,000원
건물면적		보증금	(10%) 119,900,000원
매각물건	토지 매각	소유자	유한회사리치산업 외 3명
개시결정	2018-11-19	채무자	김현성외1
사건명	임의경매	채권자	김현성외1
관련사건	2019타경3593(중복), 2019타경3609(중복), 2019타경3616(중복)		



매각토지, 건물현황(감정원 : 인산감정평가 / 가격시점 : 2018.11.29)

목적	지번	용도/구조/면적/토지이용계획	㎡당 단가 (공시지가)	감정가	비고	
토지	1	월암리 62-12	준보전산지, 하수처리구역, 개발촉진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도시계획구역	임야 7376㎡ (2231.24평) 109,000원 (12,600원)	803,984,000원	· 현황 '목전'
	2	월암리 62-15	준보전산지, 개발촉진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도시계획구역	임야 2189㎡ (662.173평) 68,000원 (10,700원)	148,852,000원	· 현황 '목전'
	3	월암리 62-16	준보전산지, 개발촉진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도시계획구역	임야 10270㎡ (3106.675평) 74,000원 (7,640원)	759,980,000원	· 현황 '목전'
감정가		면적소계 19835㎡ (6000.088평) 토지:19835㎡ (6000.088평)	소계	1,712,816,000원 1,712,816,000원	토지 매각	



문의.010-6834-7400